

## 실력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김 지 욱

- 한국과학영재학교 졸업
- 한국과학기술원(KAIST)화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 I. 들어가며

주위 모든 사람들이 놀랄만큼 로스쿨 진학은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며 평생을 화학과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잠깐의 관심으로 들었던 법학 교양에서는 절망을 느꼈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막연한 관심은 졸업 이후 고민 앞에서 시야를 넓혀 주었고 가족의 응원은 큰 용기가 되어 로스쿨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로스쿨에 진학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했던 순진한 마음은 입학 이후 선배들과 동기들을 보며 깨졌고 변호사시험의 현실 앞에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주위에 로스쿨에 진학한 사람도 없다보니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할지조차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 선배들에게 알음알음 물어가며 방법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공부방법을 정립해가며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너무나 좋은 공부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수기는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별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나름의 시행착오와 평가 그리고 반성 등을 읽으시며 본인의 공부방법을 정립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II. 학교생활

### 1. 입학 준비하며

주위에 로스쿨에 진학한 사람이 없었던터라 입학 전에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몰라 진학 준비를 위해 등록하였던 서로연에서 정보를 탐색하던 중 특히 민법 예습을 해야한다는 글이 많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찾아보는데 그조차도 정보가 없어 뭐든 좋다 결단하여 김동진 강사의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가 저랑 잘 맞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의 예습으로 민법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고 민법 전체의 구조와 사례 답안 작성에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요건을 직접 적어 보고 여러번 읽어보고 암기했던 일은 제가 3학년 내내 민법에서 요건을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더하여 기본 사례를 주어주고 점수에 따른 모범 답안을 제공해주었는데, 이를 한번씩 베끼기라도 하면서 사례형 답안 작성으로 해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2. 공부 방법 탐색

#### (1) 고민의 시작

이제 학교에 입학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야하는데 어떤 책을 사야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할지 정보도 없을뿐만 아니라 감도 안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학부때부터 교수님들의 강의계획서의 필수난 추천 도서를 수업 이후에 사는 습관 때문에 수험기간동안 읽지도 못할 책들을 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부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민법 예습이 끝나지 않아 나머지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받은 곳은 여러 학회의 선배들의 조언이었습니다. 미리 공부해봤던 사람을 전혀

몰랐던지라 그래도 선배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곳이 학회였습니다. 학년 초기에는 학회 내에서 만남이 잦기 때문에 선배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고 그 중에서 친해진 선배들에게 직접 어떤 책이 좋은지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동기 중에도 고시를 준비해본 사람들이 있다면 친분도 없었지만 조심스럽게 물어보곤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선배의 공부방법이 있었는데, 본인은 쟁점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을 한장의 카드에 정리해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드 모음집을 가지고 다니며 암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순간 따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첩을 사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손으로 적어 정리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굳이 손으로 적기 보단 빠르게 수정·편집이 가능한 워드를 활용하였습니다.

#### (2) 암기장 정리

무엇을 정리할까에 대한 힌트는 사례집의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과서나 기본서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가야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공부는 사례형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다면 답안을 정리하는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고 여러 사례집을 도서관과 동기들에게 빌려 공통되는 목차나 문장들을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목표는 “변호사시험까지 가지고 가자.”였습니다. 선배들과 대화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 단권화와 암기장 활용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책 한권만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이었고 그럼 나는 직접 정리한 암기장

을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에 시간 투자를 제일 많이 하였습니다.

### (3) 암기장 정리의 장점과 활용법

암기장 정리가 주요했던 것은 첫번째 정리를 하면서 저만의 책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여러 책을 참고할 수 밖에 없으며 나만의 논리 구조나 이해과정이 없이는 정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조화가 이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본서를 읽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사례형 답안을 조합하여 재정리하는 과정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 컨디션과 상관없이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정리 과정을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을 활용하여 의지를 가지고 기본서를 읽거나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단기목표를 세워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리를 완성한다는 계획이 있더라도 단기목표가 없다면 하나하나 이뤄가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진도에 맞춰서 정리한다거나 스터디 진도에 맞춰 정리를 해야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다보면 의지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정리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리 완료를 시험기간 2주전으로 잡아두고 그 전까지는 시험 범위를 모두 정리하겠다는 목표를 잡아두어 더 서둘러서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기간에 암기장만을 활용하여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리한 암기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일체 보지 않고 이제 암기장에 있는 내용은 완벽하게 소화하여 있는 내용은 무조건 다 적는다는 생각으로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시험기간 2주 전까지 암기장을 완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암기장만 2주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1회독은 이틀도 걸리기도 하지만 2회독부터는 회독수가 늘고 시험기간이 다되 가면 거의 10회독 최소한 5회독은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험 전에도 한번은 다 읽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암기장 활용을 통한 공부는 비법학사이며 이과생으로써 가장 힘들 수 있는 1학년 1학기 민법에서 1등을 하게 하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방법을 3년동안 가지고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였습니다.

### (4) 추가적인 활용

처음 1학기때에는 암기장 정리뿐만 아니라 암기장의 목차 또는 주요 쟁점의 이름만을 따로 정리하여서 나름대로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가 이뤄지다보니 암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암기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암기장의 활용성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학기에 오히려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공부방법에 확신에 찬 나머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여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아보니 실수하거나 좋은 답안지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시험뿐 아니라 자신만의 검토 방식을 통해서 모르거나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파악해둔다면 시간을 오히려 절약하고 완벽한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3. 목표를 무엇으로 둘 것인가

어느 순간부터 동기 내에서 변호사시험만을 목표로 삼겠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신은 무시하고 학점만을 채워서 졸업요건을 만족시키고 이후 형재실, 민재실, 검실 등은 필요하면 듣고 굳이 듣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곤 했습니다. 들어야 하는 학점이 많고 수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요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만의 진도에 따라서 변호사시험만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학교 커리큘럼을 따라 수업에 충실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고 그 진도를 따라가다보면 자신만의 공부시간이 부족해지거나 자신과 맞지 않은 스케줄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 대한 부담이 변호사시험까지 남은 짧은 기간에 합격 가능성을 감소시킨 않을까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커리큘럼을 최대한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공부해야 할 과목들이고 학점을 채워야 한다면 최대한 진도에 맞게 공부하다보면 한번씩은 볼 수 있는건 아닐까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시험을 봐야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암기장 정리하고 실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기마다 수강하기를 추천하는 수업을 최대한 채워들으려고 하여 거의 20학점에 맞춰 수강하였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진도에 맞춰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강제적으로 수업을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

니다. 따라서 3학년이 되어서 한번도 보지 않은 과목은 없었습니다.

### 4. 유익했던 방학?

처음 방학이 되면 거창한 목표로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기말을 마치면서 열심히 연습해 놓고 미리 암기장 정리를 해두고 편한 학기를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민법은 전체를 회독하고 다음 학기 수강 과목 진도를 모두 연습할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선배들에게 아무리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시간을 계산해보면서 가능할 것 같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방학을 보내며 수업과 시험의 위력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강제성이 없을 때 사람은 특히 저는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암기장 정리까지는 갈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집 밖을 나가야 공부를 하는 타입이라 일어나면 열람실에 가고 저녁이 되어야 집에 돌아오는 습관을 들였다는 점입니다. 계속 책상에 앉아있기라도 하면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도 밥 시간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안했다는 생각에 짧은 시간동안 엄청난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잡힌 습관은 3년동안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결국 방학동안 다음 학기 민법 진도와 어려울 것 같은 과목 한가지 정도를 연습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으면 다른 과목을 하다가 다음 학기가 다가왔습니다.

큰 목표를 가지고 연습 계획을 세우기 보단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끝내되 두 과목에서 세 과목까지는 끝내보겠다는 생각으

로 방학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났더라도 후회하기 보다 있는 시간에 나를 최선을 다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5. 떨어지는 성적

나름대로의 공부방법을 빠르게 찾은 덕분에 오히려 처음에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열심히 하는 곳이고 공부방법을 찾아가면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하여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느슨해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학점과 등수가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이상을 한다고 생각했고 특히 민법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여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3학년이 되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정해진 공부방법은 실행했습니다. 정리해야하는 양이 많아진 것과 공부가 느슨해졌던 것이 합쳐져 정리 스케줄이 점점 미뤄졌지만 정리를 완성하고 시험을 대비했습니다. 자신의 공부방법을 정하고 정한만큼은 꼭 한다면 그 학기동안 필요한 양은 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 6. 2년이 지나고

3학년이 되면서 “과연 내가 아는게 있나!”라는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시험은 볼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모의고사가 계속되어도 성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다가도 자신에 대한 의심과 동기나 타인과의 비교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1년동

안 제일 어려운 것이 이런 생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공부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가 잘 되는지, 기분이 좋은지 여부와 관계 없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 시간동안 무엇을 하더라도 잠깐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약속이 있었던 날도 있었고 그날 하루 계속 핸드폰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책상에 최대한 앉아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책을 잡고 있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3학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들여왔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 열람실에 와서 했던 시간들이 1년을 버틸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나 고민이 많아질 때에는 운동장을 돌며 사색을 하며 걷거나 뛰었습니다. 사색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답답함이나 걱정들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조금은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뛰는건 여러모로 좋았는데, 유산소 운동으로 체력적인 발전이 있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육체적인 체력 소모로 수면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해와 다른 점은 코로나로 인한 변화였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열람실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을뿐만 아니라 생활면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2학년 겨울방학을 흘려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다는 점보다 힘든 것은 남들은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기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남들도 같은 마음과 상황이었을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수의 뛰어난 사람 보기에 비해 평범한 다수의 사람

들을 바라볼 때 여유가 생기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7. 모의고사 준비와 그 결과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있었지만 당장 급한 것은 모의고사를 잘 마쳐서 졸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졸업요건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이 계속되었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특강 등을 통해서 가점을 준다고 했지만 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6모를 앞두고 한과목씩 졸업요건을 맞춰가는 방식으로 집중을 해야할지 그래도 모든 과목을 봐야할지가 고민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과목을 보되 공법을 조금 놓기로 생각하고 8모 때 열심히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당시 민재실과 검실을 수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민사법과 형사법은 최대한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재실과 검실 시험에 집중을 하였고 이후 짧게나마 선택형을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내에서 전체 성적이 중간 정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공법은 준비가 부족했기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중간 성적이 교내 합격률과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안심할 수 없었고 다음 모의고사부터 등수를 최대한 올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별히 준비가 부족했던 객관식과 공법에 치중하기로 계획했습니다.

6모가 코로나로 인하여 미뤄져 8모까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거의 6주만에 시험을 다시 봐야하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이 공법을 준비하는데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였고 다른 과목의 경우

선택형만을 최대한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역시 공부한대로 공법 성적은 상승하였지만 그만큼 다른 과목에서 성적 하락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전체 성적은 상승하였고 공부를 한대로 성적이 오른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8모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시험간 간격이 적는데 당장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봐야한다는 압박감과 시험을 보기 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시간은 흘러가기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마지막 10모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이전에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변호사시험과 난이도가 가장 비슷하고 모의고사 중 가장 완성도 있는 시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8모 이후 고민했던 것은 민법 중 친족상속 부분과 상법의 어음수표법, 보험법 준비를 해야할지 여부였습니다. 위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는데 비하여 그 양이 많다보니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학교 수업을 최대한 따라갔다고 하지만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었기에 수업을 듣지도 않았을뿐더러 특별히 공부를 하지도 않아 소위 구멍이 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모두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까지 공부를 하지 않다가 새롭게 시작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한번이라도 본게 아니라면 보험법 정도는 포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친상법과 어수법은 사례와 기록까지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효율이 좋았다고 할 순 없으나 공부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10모를 위해서 모든 과목을 균형있게 공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독수를 늘려갔습니다.

## 8.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10모가 끝나면서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가장 열심히 해야 할 2달동안 가장 공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싫고 책만 계속 보다보니 너무 지루하고 손에 잡힐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나가도 공부도 하지 않은 날들도 생겼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이 10모 성적 등수가 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10모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회독수를 늘리면서 변호사시험에서 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암기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전에 표시해둔 밑줄과 키워드에 집중하면서 빈칸은 없앤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하루하루 앞에 뭘 공부했는지 돌아키다보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불안감에 계속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야한다는 생각으로 회독을 늘려가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3년동안의 시험들을 통해서 당장 머리에 없던 것 같더라도 어떻게든 써냈다는 자신감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걱정이었던 것은 선택형 점수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안정적인 갯수라는 110개를 목표로 선택형에 집중하였지만 10모가 되어서야 90개가 겨우 넘어 마지막까지 선택형에 집중했습니다.

## 9. 시간은 흘러 끝이 오다

결국 변호사시험 전일이 되었습니다. 그 전주부터 시험 자체를 치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이 시험으로 나의 3년

이 평가되고 불합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결과를 감수하느니 시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흘렀고 아침이 밝아 저는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시험 기간은 모의고사와 비슷했으면서도 훨씬 긴장된 상태였고 더 형식적이었습니다. 특히 처음에 선택형을 받았을 때, 시험지를 붙여논 스티커를 제거하는걸 모르고 들어갔어서 매우 당황했었습니다. 또 본시험에서는 30분 전부터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모의고사에서는 그전까지 책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고 있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연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었는데 알고 있더라도 당황스러운 점이 많아 미리 연습이 되지 않는다면 첫날부터 흔들리는 마음상태로 시험에 임하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10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공법 선택형부터 기록형까지 당황스러운 문제가 많아 다수의 동기들이 힘들어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시험기간이 길기 때문에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과거로부터 벗어나 계속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것까지 3년의 시험을 통해서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크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마치고 사람들과 계속 함께하지 않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동안 점심을 계속 혼자 먹었는데 덕분에 주위에서 나오는 복기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저만의 페이스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더라도 최대한 이전 시험이 아닌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대화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전에는 정리해둔 암기장을 최대한 다

보려고 했고 한번에 회독이 불가능할 것 같은 경우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위주로 읽으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소송법이 약하다고 생각하여 소송법을 중점적으로 읽었습니다. 시험 직전 쉬는 시간에는 많이 보지 못한 최신 판례를 보려고 했습니다. 최신판례를 8모 이후에 보기 시작해서 여러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보는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선택법 시험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수면시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조금 빨리 자서 빨리 일어나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 이런 루틴이 연습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 다르지만 최대한 시험 루틴에 맞춰 생활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Ⅲ. 유형별 및 과목별 공부방법

#### 1. 선택형

입학하면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선택형은 3학년 때 준비하여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같은 말을 했었고 모두가 그 말을 믿었고 저 또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3학년이 될 때까지 선택형 시험이 있던 2과목 정도를 빼고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년동안 가장 아쉬운 것은 선택형 준비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3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객관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유니온 객관식 문제집을 과목별로 구했습니다. 그것도 최신판으로 구하지 않고 선배들이 준비하고 나눠준 책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당해 모의고사는 직접 볼 것이기 때문에 작년 모의고사와 변호

사시험 기출 선택형은 공부를 하고 따로 혼자서 시험을 보듯이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긴 하나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공부시간 부족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를 풀 자신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문제를 푸는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를 직접 풀어보아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나 저에게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설의 판례를 읽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고, 뒤에 있는 MGI 포인트에도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다만 겹치는 포인트나 판례가 나온 경우에는 읽거나 밑줄을 치지 않고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과목을 1회독을 진행하였고 당시에는 이렇게 하면 변호사시험까지 이 문제집들만 가지고 객관식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회독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MGI 포인트를 정리해둔 엑스칼리버를 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MGI 포인트만 보고 넘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책을 열심히 넘길 바에 엑스칼리버를 사서 그 수고와 시간을 절약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웃기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도 처음에는 작년판을 구해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똑같이 1회독에서 형광펜으로 칠하고 2회독에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없는 포인트는 없는지 문제집과 비교하며 정리하였고 이해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조문이 있는 등의 경우 필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10모에 가까워서야 작년 모의고사와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를 풀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신판을 구해 다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집으로 보다 최신판이 나올 때 바로 사서 정리를 시작했다면 다시 정리하는 수고가 덜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엑스칼리버를 선택형을 준비하는데 주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모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으로는 따로 본인이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고 빠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으나, 큰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자주 출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의 경우에는 출제 횟수를 옆에 표시해두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단점을 매꾸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과목의 경우 선택형을 주로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형법은 엑스칼리버만을 회독하였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에 대한 형식에 어느정도 익숙해졌다고 판단했고, 특히 형법 각론의 경우 판례를 많이 아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립요건을 범죄마다 필기해두고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공법의 경우에도 판례를 통해서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 판단에 용이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택형에 더 힘을 주어 공부하였습니다.

## 2. 사례형

나만의 암기장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단권화와 암기장에 주목하였으나 어떻게 단권화를 하는 것인지 몰랐고 암기장을 여러개 참고해보니 목차라든지 논리구조가 개인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맞는 암기장을 만들어서 변호사시험까지 가지고 가보자는 마음으로 학교 수업을 따

라가면서 진도에 맞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맞춰 정리하고 시험기간에는 이것만을 사용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열심히 정리하였다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 3학년이 되어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민법과 민소법뿐이었습니다. 민소법의 경우에도 3학년이 되어 다시 정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다루는 진도만으로는 전체적인 구조를 잡을 수 없었을뿐 아니라 모든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머지 과목은 사례형 암기장을 사용했습니다.

암기장을 활용할 때에는 1회독에는 형광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에 밑줄을 쳤습니다. 2회독에서는 그중에서도 꼭 답안지에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3회독에서는 밑줄 그은 문장에서도 중요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다음부터는 회독수를 늘렸습니다. 특히 암기에 중점을 두기보단 여러번 읽는 것에 집중하여서 빠르게 읽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암기는 마지막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조금해지는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법은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상법요해를 사용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집필하셔서 출제자이자 동시에 채점자이신 교수님들께서 어떤 쟁점을 중요시 여기시고 어떤 답안을 원하시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에 비해 양도 많지 않아 가장 만족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형법의 경우 따로 사례집을 보지 않고 엑스칼리버에 답안에 적어야할 요건을 따로 필기해두었습니다. 또한 판례 문구를 정확히 쓰는데 집중하기 보다 문제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요건에 맞게 적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암기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물론 제가 형법에 이미

형재실과 검실 1, 2를 통해서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또한 따로 암기장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창현저 사례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기출 및 교수님께서 만드신 문제를 활용하여 신광은저 형사소송법에 짧게 정리된 사례형 쟁점정리에 필요한 내용을 더 추가 필기하여 이를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헌법과 행정법은 강성민저 핸드북과 정성균 핸드북을 사용하였습니다. 헌법의 경우 김유향저 헌법 300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당시 강성민저 기본서를 사용하여 핸드북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가 헌법소원과 기본권인데, 헌법소원은 요건을 명확히 암기하려고 노력하였고 기본권은 각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에 중점을 두고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행정법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이해가 잘 안되었던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작정 읽고 외웠습니다. 그렇게 여러번 보다보니 자연스럽게 구조화가 이뤄졌습니다. 구조화가 되니 문제 해결 방법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행정법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행정법과 마찬가지로 절차가 중요한 소송법의 경우, 어떻게 재판이 이뤄지는지 처분이 이뤄지는지를 큰 범위로 따라가다보면 자연스럽게 구조화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세세한 판례들을 보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번 보면서 자연스럽게 구조화가 이뤄질 수 있지만 처음에 세세하게 나무를 이해하려하기 보다 숲을 보면서 공부를 시작한다면 더 빠르게 구조화가 이뤄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형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점은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나도 쓴다라는 점입니다.

합격률이 안타까운 점이지만 50%에 가깝기 때문에 중간만이라도 가면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여차피 3년이라는 수험기간과 1시간이라는 시험시간 안에 그 이상 공부하고 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대한 기출된 쟁점과 중요 쟁점만을 뽑아서 공부하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키워드만이라도 정확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 3. 기록형

기록형은 각 과목마다 특징이 조금씩 나뉘지만 결론적으로 기록형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저 각 과목을 잘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처음 기록형을 접하면서 형식 자체에 지레 겁을 먹기 마련이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록형을 못 쓰는 이유는 그저 그 과목에 대한 실력이 부족해서라는 것을 공법 기록형 수업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식이 어쨌든간에 공법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즉 선택형과 사례형 공부가 충분히 이뤄져야 기록형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이고 따로 기록형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민사법이나 형사법의 경우 민재실, 형재실, 검실 등 기록형과 관련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기록을 읽고 메모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공법의 경우에도 공법 기록형 수업에서 기록 몇개에 대한 답안을 베껴보는 정도와 기록형 엑기스를 시험 점에 훑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형식에 너무 겁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법의 경우, 민재실과 기록형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기록 검토를 여러번 해보면서 기록에서 필요한 내용

을 추출하는 연습이 되었습니다. 또한 강제적으로 답안을 작성 또는 베껴보면서 답안 형식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요건사실론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요건사실론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 모범답안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집중하여 비슷하게 쓰는데 집중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요건사실론대로 작성하였는지를 채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를 채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야기하면 사례형 답안지를 더 자세하게 쓴다고 생각하고 작성했습니다. 다만 청구취지의 경우에는 형식이 정해져 있고 점수 배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게 많이 아쉽습니다.

형사법의 경우, 형재실을 준비할 때 스테디를 하였고, 검실 1, 2를 모두 수강하여 기록 검토 연습이 많이 돼있었습니다. 또한 검실 답안의 경우 형재실에 비해 간결하고 그 형식이 기록형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기록형 연습을 해본적은 없으나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모범답안을 몇개 보면서 어느정도 형식이 있어 이를 따라 쓰니 점수가 향상된 경험이 있습니다.

공법의 경우, 학교 기록형 수업을 하나만을 수강하였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청구취지를 따로 연습할 시간도 부족했고 공법 실력으로 풀자는 판단으로 선택형과 사례형 준비에 매진하였습니다. 공법 실력으로 푸는 것까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록형 엑기스 핸드북 정도는 한번씩 보면서 자주 쓰이는 표현은 익혀두지 못한게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기록형만을 따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풀어보는 연습을 해본적이 없었고 모의고사에서 풀어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기록 검토 연습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은 형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례형에서 어느정도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시간 안에 쓸 수 있으나 기록 검토는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사법의 경우 1시간, 형사법과 공법의 경우 30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여 답안 작성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IV. 공부 외 주요했던 점

##### 1. 일상의 루틴화

공부방법을 정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꾸준히 하듯이 하루 시간도 일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밥은 12시와 6시에는 무조건 점심과 저녁을 먹는다든지 운동은 일찍 일어나서 한다든지 약속이 있더라도 약속 전후로 열람실에 들른다든지 등 일상의 시간활용에 대한 고민이 적어질수록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식사시간과 운동시간을 정해두는게 주요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위에서 말한듯이 너무 공부를 안했다 싶으면 집중력을 발휘하여 잠깐이라도 공부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쉬는 시간이나 쉬는 날도 정해둔다면 그 외의 시간에 쉬지 않거나 쉬는 날 전날에는 더 열심히 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도 기상과 취침 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기상 스테디를 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꼭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 맞는 루틴을 찾아가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방법을 찾는데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루틴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기 보다 빠르게 정하고 실천하고 맞지 않을 때 다시 빠르게 바꾸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공부하기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열심히 많이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날의 공부량이나 공부시간 등 절대적인 양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하는 공부가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을 채우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공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년의 수험기간을 지나다보면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다가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감정이 보통보다 크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부가 잘 안될 때도 잘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열람심을 갖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하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하려고 했고 책상에 앉아있었다보니 잠깐이라도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년동안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에 가까이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V. 맺으며

누군가에게 지난 3년의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기는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있는 시간동안 공부를 놓지 않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과 불안 앞에서 흔들리는 시간동안 마음과 생각을 비우며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함께 했던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있기에 더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혼자였다면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저에겐 이 3년의 시간이 단순히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하긴 어렵더라도 분명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법조계를 꿈꾸지 않았던 제가 로스쿨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좋은 동기들을 만나 함께 공부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통한 식사와 운동으로 어느때보다 오히려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좋은 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공부법, 여러 생활패턴이나 멘탈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정한 바가 있다면 의심하시기보다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 꾸준함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쌓일 것이고 실력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뵙길 소망합니다.